

× 전기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성화고 설문조사 분석 이슈리포트



전기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특성화고 재학생 타겟>>



목 차

I. 설문조사 개요	1
II. 설문조사 분석	1
PART 1. 설문 기본 정보 분석	1
1. 설문 응답자의 학년 현황	1
2. 설문 응답자의 성별	1
PART 2. 주요 설문조사 분석	2
1. 전기 계열 전공 배경	2
2. 전기 산업 진출 여부	3
3. 전기 산업 진출 직종	4
4. MBTI 현황	5
5.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호감도	6
6.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여부	7
7. 전기·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	8
8. 전기·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	9
9. 전기·에너지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	10
PART 3. 진로 관련 현황	11
1.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11
2. 진로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보유 여부	12
3.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	12
4.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가능성	13
5. 전기공사 산업계 취업시 기대감	13
6. 전기공사 산업계 취업시 우려사항	14
PART 4. 기관 인지도 현황	15
1.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지도, 오송사옥 인지도	15
2.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참여 여부	16
3.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 교육과정 수요	1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대표기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임명수 차장 (02-3219-0596, ymyoungs@keca.or.kr)

□ 본 이슈리포트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임명수 차장이 작성하였습니다.

I 설문조사 개요

❖ 추진목적

- 전기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산업에 대한 산업 이미지와 진로선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전기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기공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추진방법

- 무료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모아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URL, QR코드 배포)

❖ 조사기간

- 2022. 4. 22. ~ 7. 31. (약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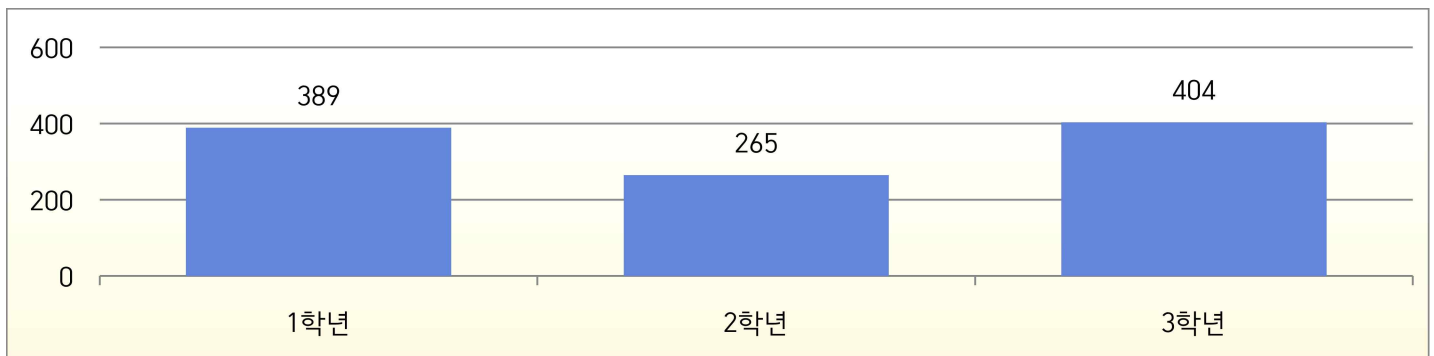
❖ 참여대상

- 전기계열 특성화고 재학생 1,058명

II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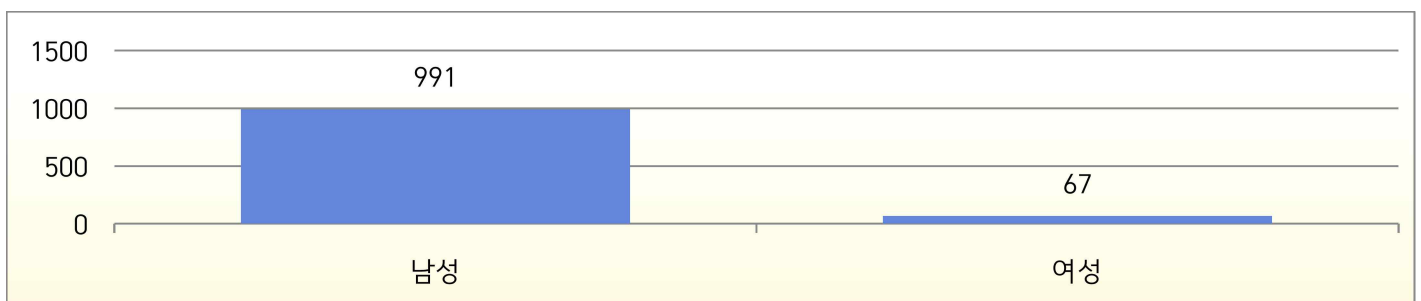
PART 1 설문 기본 정보 분석

1. 설문 응답자의 학년 현황



- 전기계열 특성화고 응답자 1,058명 중 1학년 389명(37%), 2학년 265명(25%), 3학년 404명(38%)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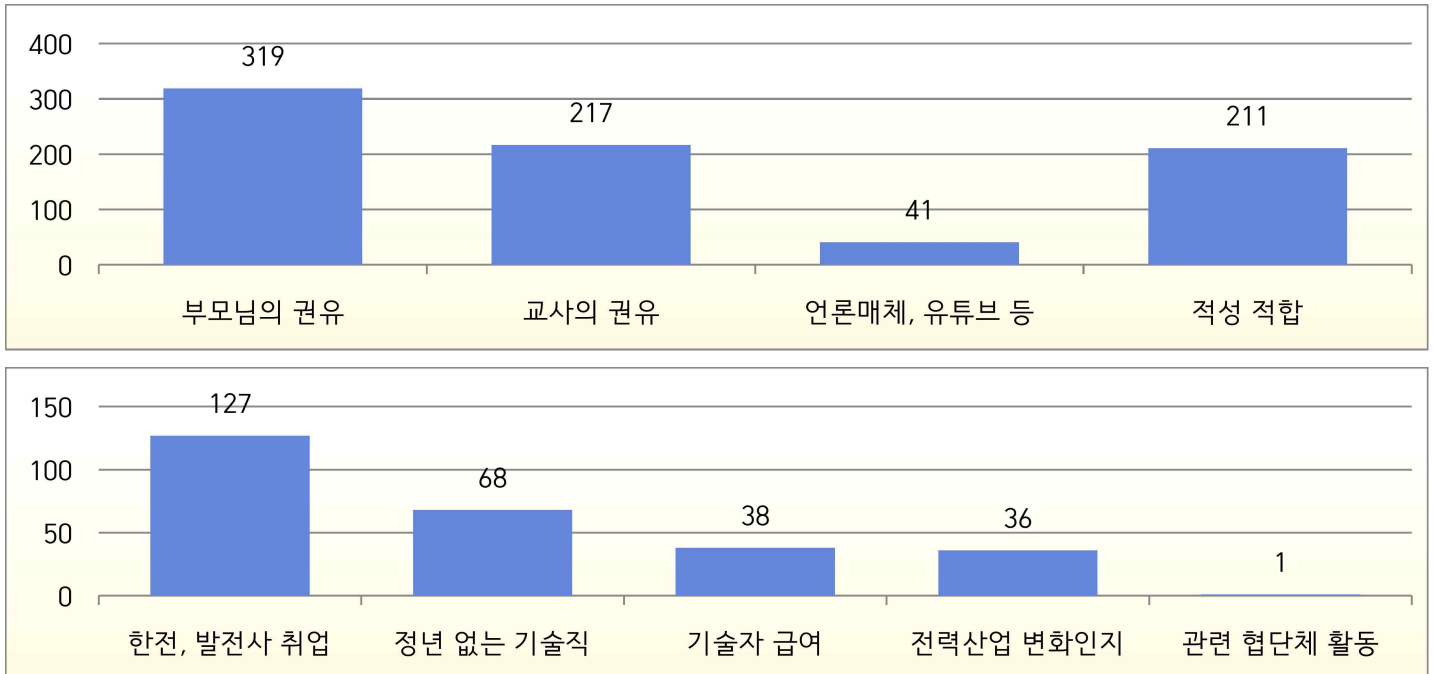
2. 설문 응답자의 성별



- 전기계열의 특성상 남성이 991명(93.7%)으로 비중이 매우 높음.

PART 2 주요 설문조사 분석

1. 전기 계열 전공 배경



사유	부모님 권유	교사 권유	언론매체 등	적성 적합	한전발전사 취업
응답 수	319	217	41	211	127
비중	30.2%	20.5%	3.9%	19.9%	12%
사중	정년 없는 기술직	기술자 급여	전력산업변화	관련 협·단체 활동	
응답 수	68	38	36	1	
비중	6.4%	3.6%	3.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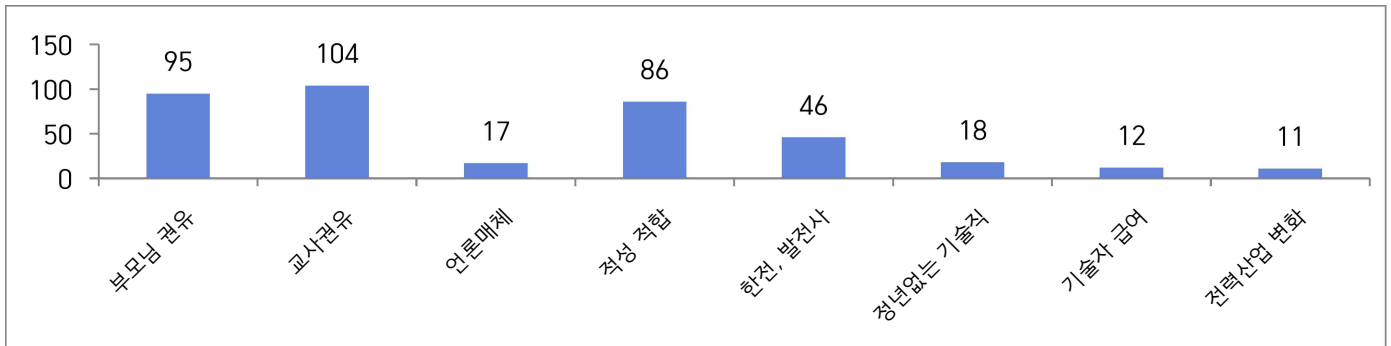
○ 전기 계열을 전공한 재학생의 배경은 부모님의 권유가 319명(30.2%), 교사 권유 217명(20.5%), 적성 적합은 211명(19.9%)로 조사되었음.

○ 학년별 전기 전공 배경을 분석한 결과, 부모님의 권유가 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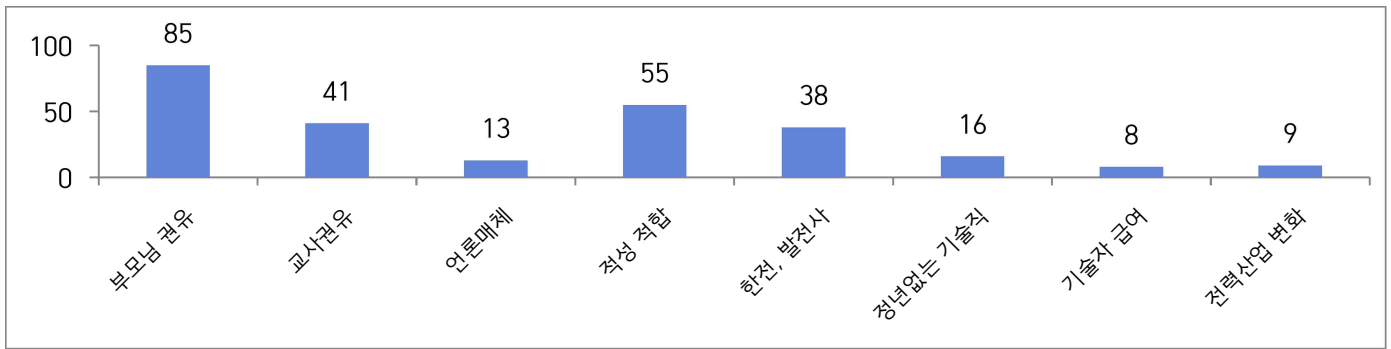
- 교육부 진로교육현황조사(2020) 중 ‘중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 및 진학 희망 고등학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요인’ 통계에 따르면 희망하는 진로·직업 목표 1,895명(24.8%), 성적 1,330명(1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 계열 전공 배경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모님의 희망 740명(9.6%), 선생님 권유(2%)로 조사되었음.
- 진로계획 및 관련 학과 등 진학 희망요인과 전기 계열 전공 재학생의 전기 전공 배경사유가 차이를 보이는 사유는 과거 부모, 교사 세대가 갖고 있는 전기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생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원인이 되고 있음. 아울러 부모와 교사는 진로선택을 위한 과정에서 산업의 정확한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업계에 유입되더라도 전기산업에 대한 충분한 직업관을 형성하지 못해 산업계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이탈될 수 있음.

- 따라서 전기 계열 전공을 조언하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전기산업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직업의 가치, 비전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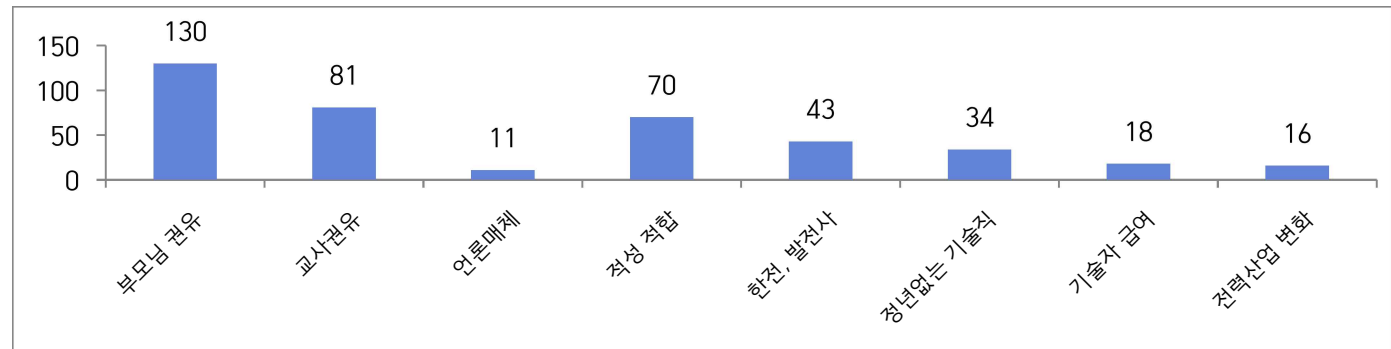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1학년 전기 전공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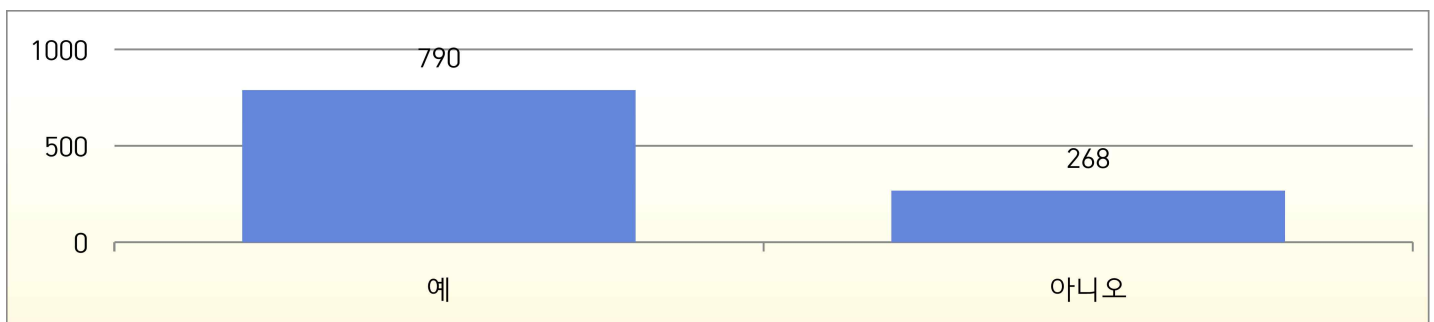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2학년 전기 전공 배경>



<전기계열 특성화고 3학년 전기 전공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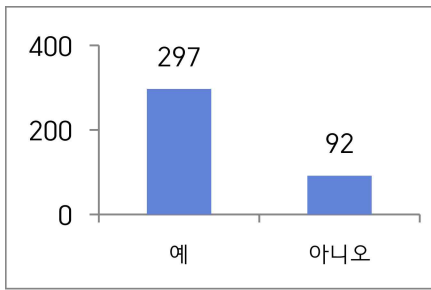


2. 전기 산업 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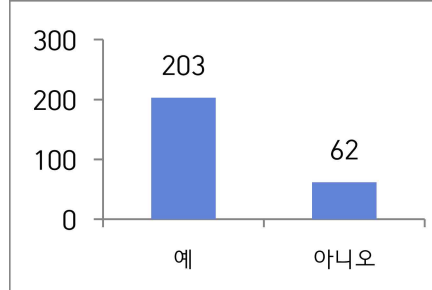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응답자 1,058명 중 전기산업 진출을 희망한 학생은 790명(74.6%),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268명(25.4%)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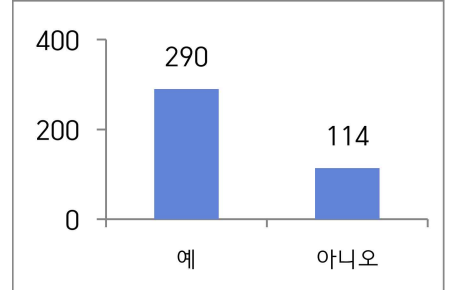
<1학년 전기산업 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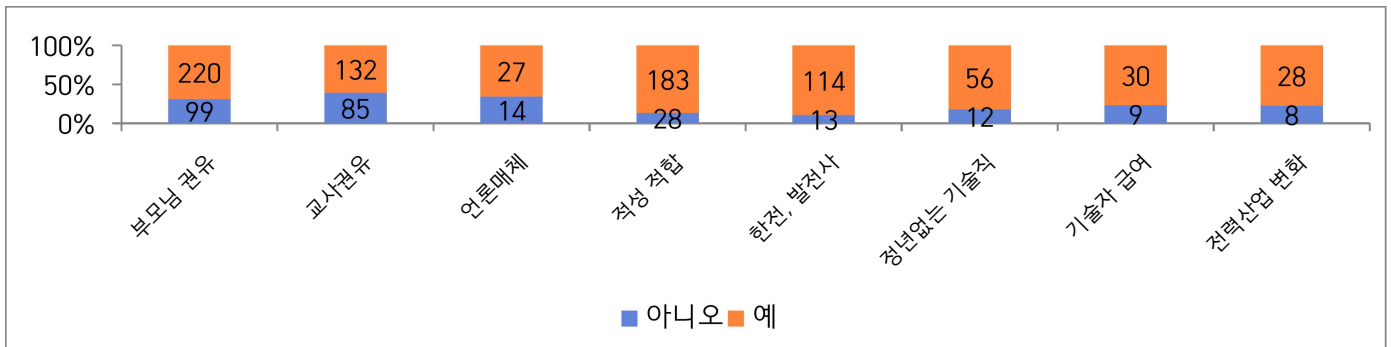
<2학년 전기산업 진출 여부>



<3학년 전기산업 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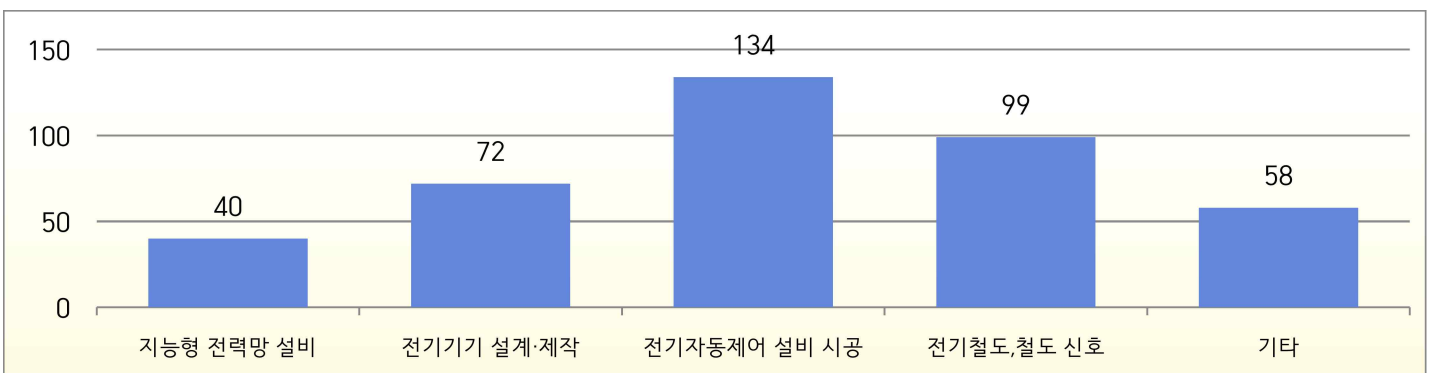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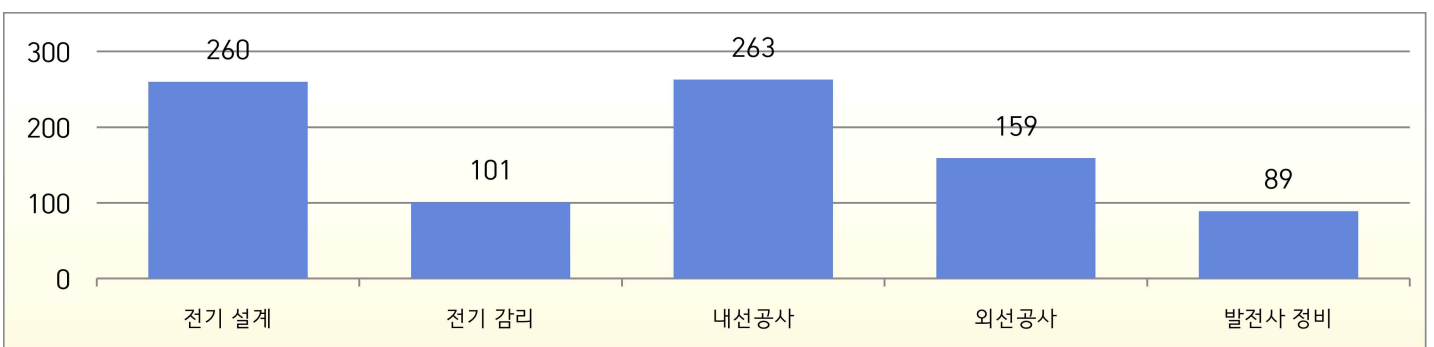
<전기 계열 전공 배경별 전기산업 진출 여부>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 중 과반수 이상이 전기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학년 76.3% 2학년 76.6% 3학년 71.7%가 전기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것을 볼 때 전기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전기 계열 특성화고 진학 배경 중 부모 및 교사의 권유에 따라 진학한 학생의 약 30%는 전기산업 진출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 전기 산업 진출 직종(중복 선택 문항)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 중 전기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 중 내선공사 263명(20.6%), 전기설계는 260명(20.3%), 외선공사 159명(12.5%) 순으로 조사되었음.
- 대분류 기준 전기공사 시공은 422명(33%), 전기설계·감리는 361명(28%)으로 조사됨.

- 전기공사 산업은 3D산업으로 인식되어 신규인력의 유입감소가 인력수급 악순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되고 있으나 본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기계열의 특성화고 재학생 중 전기공사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30%로 업계에서 예상하는 수보다는 많은 것으로 체감되지만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50% 이상의 수치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전기공사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신규인력 유입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전기공사 산업계 유입을 위해서는 전기공사 관련 직종의 비전, 가치 등 진로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제공하여 업계 유입을 독려해야 할 것임.

4. MBTI 현황

MBTI(Myer 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도구로서 MZ세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비전 체계도에서 전기공사산업과 MBTI 연계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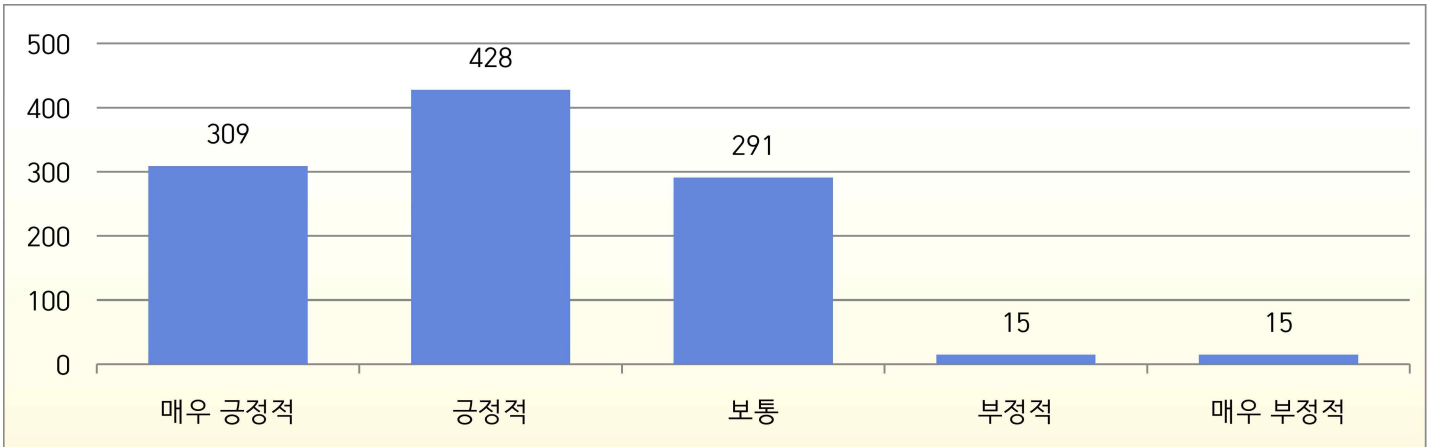
전기공사산업 진출 희망 재학생							
외향형(E)	내향형(I)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판단형(J)	인식형(P)
109	150	120	139	65	194	75	184
42%	57%	46%	53%	25%	74%	28%	71%

설계감리 진출 희망 재학생							
외향형(E)	내향형(I)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판단형(J)	인식형(P)
121	127	100	148	73	175	60	188
48%	51%	40%	59%	29%	70%	24%	75%

전기자동차제어 진출 희망 재학생							
외향형(E)	내향형(I)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판단형(J)	인식형(P)
49	58	57	50	31	76	29	78
45%	54%	53%	46%	28%	71%	2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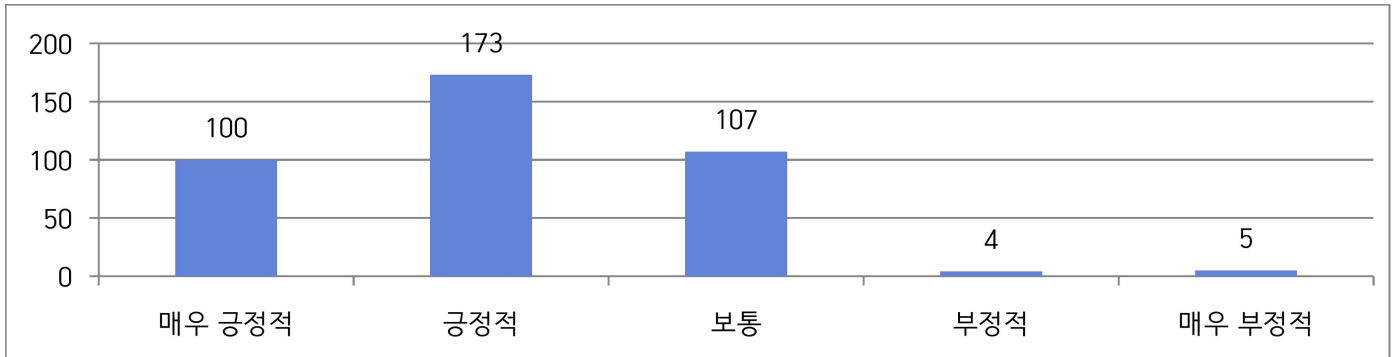
전기철도 진출 희망 재학생							
외향형(E)	내향형(I)	감각형(S)	직관형(N)	사고형(T)	감정형(F)	판단형(J)	인식형(P)
30	45	45	30	17	58	24	51
40%	60%	60%	40%	22%	77%	32%	68%

5.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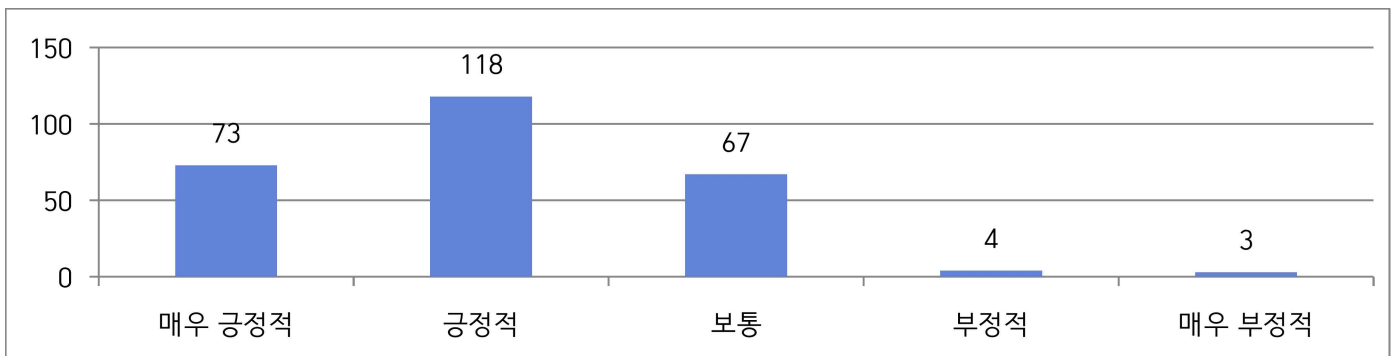


○ 특성화고 재학생 중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은 737명 (69.6%)이며, 일반적 호감도를 갖고 있는 학생은 291명(27.5%)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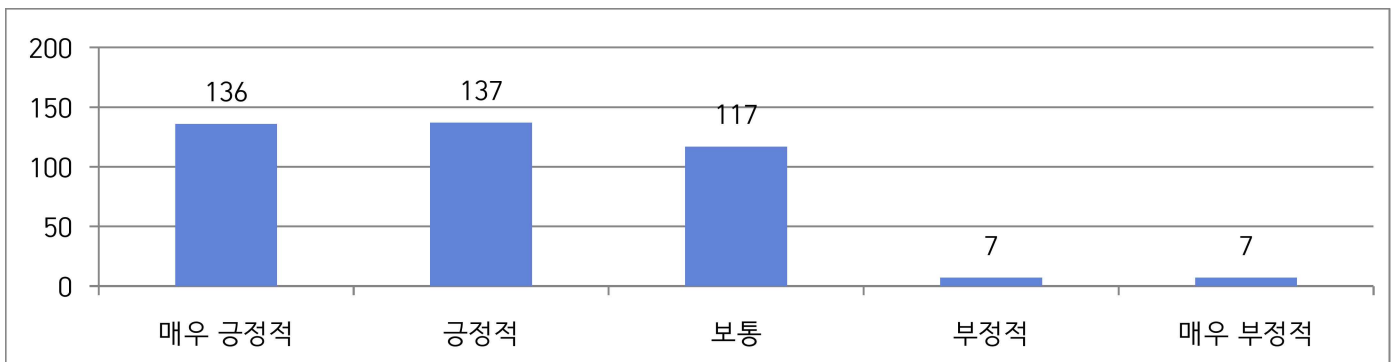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1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전기계열 특성화고 2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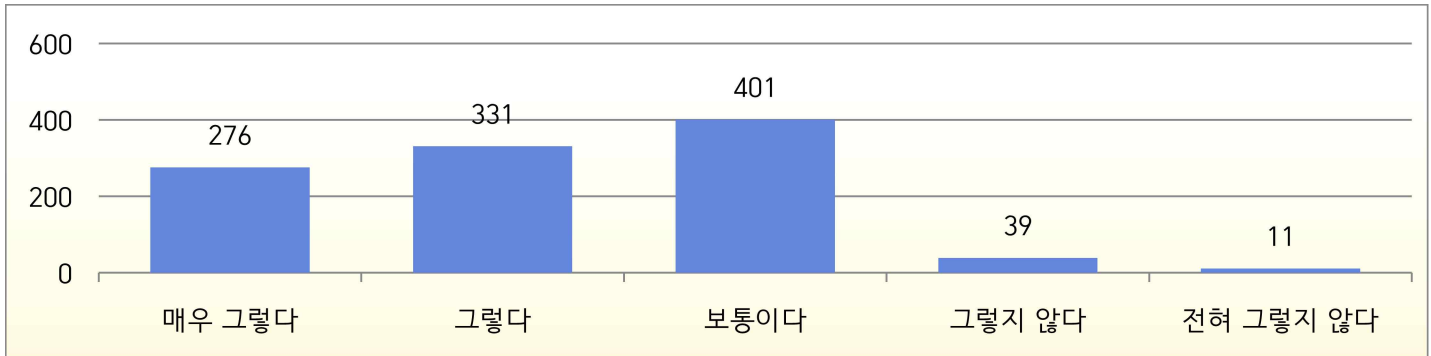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3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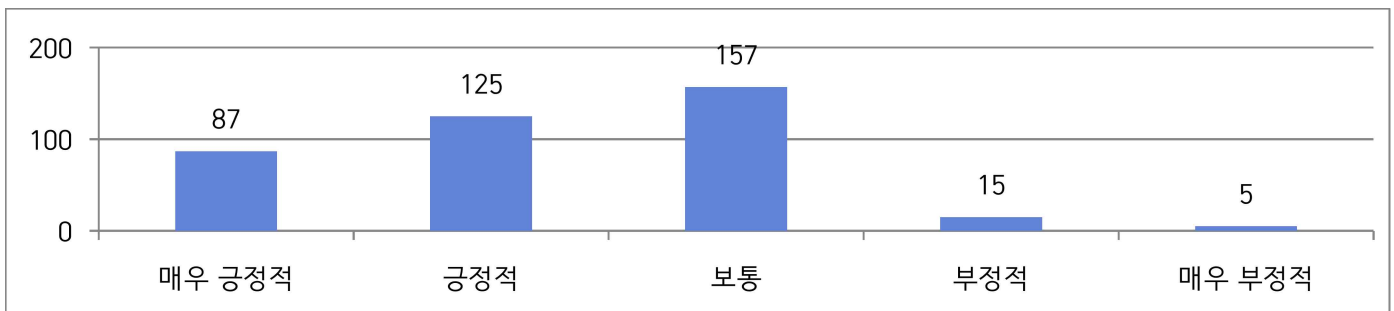
- 전기계열 재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약 30%가 전기산업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것을 볼 때 전기산업 이미지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6.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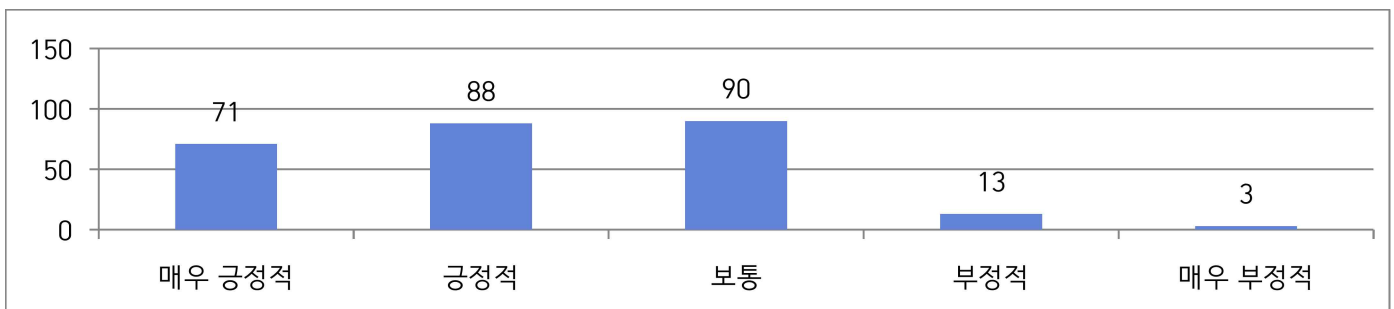


- 전기·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긍정적이나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607명으로 전체 57.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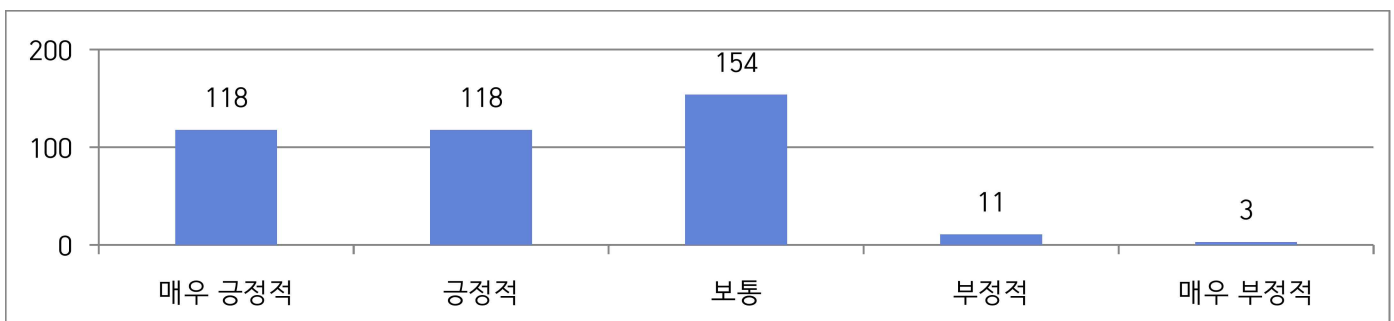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1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전기계열 특성화고 2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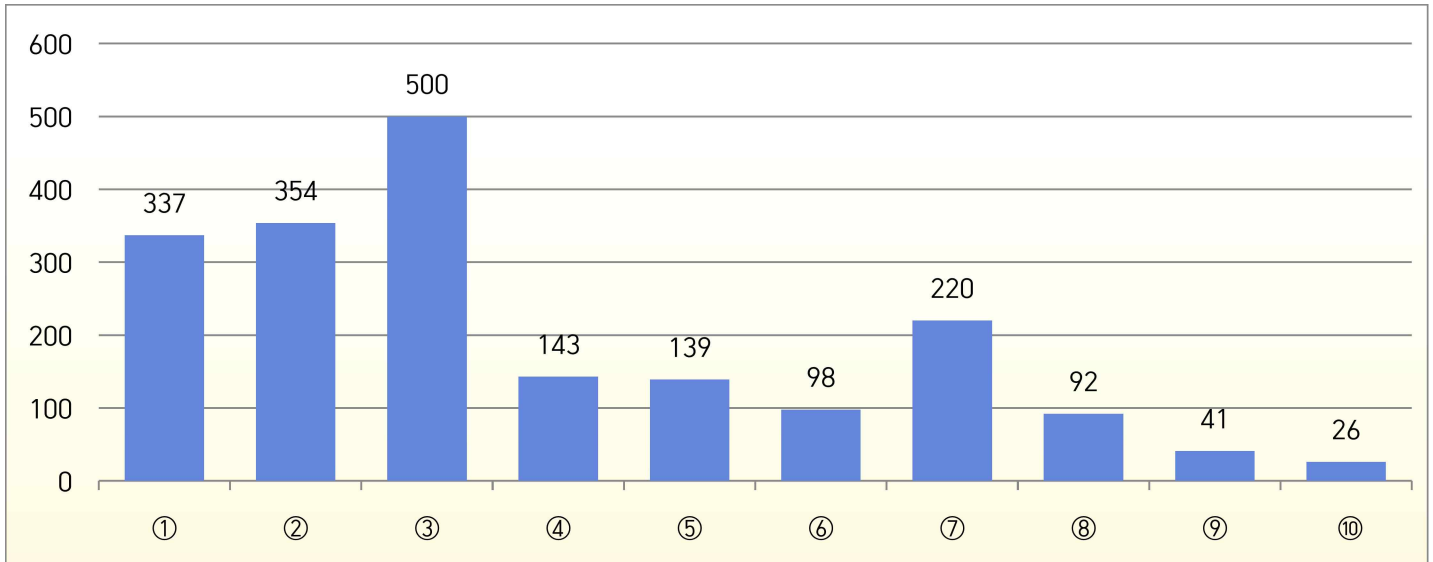


<전기계열 특성화고 3학년 전기·에너지 산업 호감도>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 중 고학년일수록 전기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취업 또는 전기 계열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 등 전기·에너지 산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산업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7. 전기·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중복 선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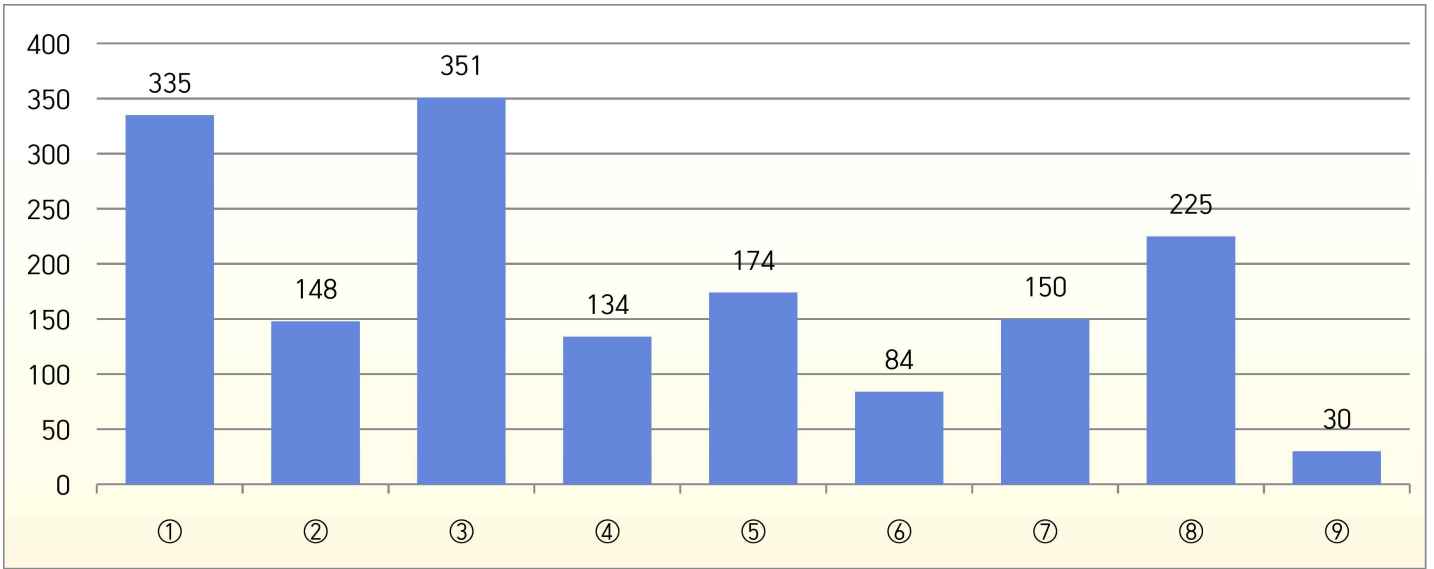
- ① 마이크로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전력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 ② 전기차,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산업변화에 따른 역할 증대
- ③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④ 불필요한 학력과 스펙이 아닌 직무 숙련 여부에 따른 역량 인정
- ⑤ 전기기술 숙련을 통한 정년이 없는 기술자 활동
- ⑥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기업의 오너 가능성
- ⑦ 경력에 따른 고임금 보장
- ⑧ 전기, 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대외활동
- ⑨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 전기, 에너지 자원산업의 공사비 투명성 지원 제도
- ⑩ 기타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은 전기·에너지 산업의 긍정적 요인으로

-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으로 인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500명 (25.6%)
- 전기차,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산업변화에 따른 역할 증대 354명 (18.1%)
-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전력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 337명 (17.3%)의 순으로 전기·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역할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융복합 기술에 따른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기차 상용화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를 보고 전기·에너지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인 산업의 미래와 직업의 가치, 비전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이미지 메이킹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8. 전기·에너지 산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선택 문항)



- ① 탄소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인한 탈원전, 화력발전 폐지 등 일자리 감소
- ② 전기차,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산업변화에 부합되는 기업 경쟁력 미흡
- ③ 전기, 에너지 산업의 부실시공,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안전성 미흡
- ④ 전기,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한 비전
- ⑤ 전기 기술자에 대한 편견과 시선에 대한 인식(3D 산업 인식)
- ⑥ 전기,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 및 제도적 수익구조
- ⑦ 전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보취득 채널 부족
- ⑧ 불안한 전기, 에너지 산업 현장 문화(고령기술자와 신규기술자간의 텃세 등)
- ⑨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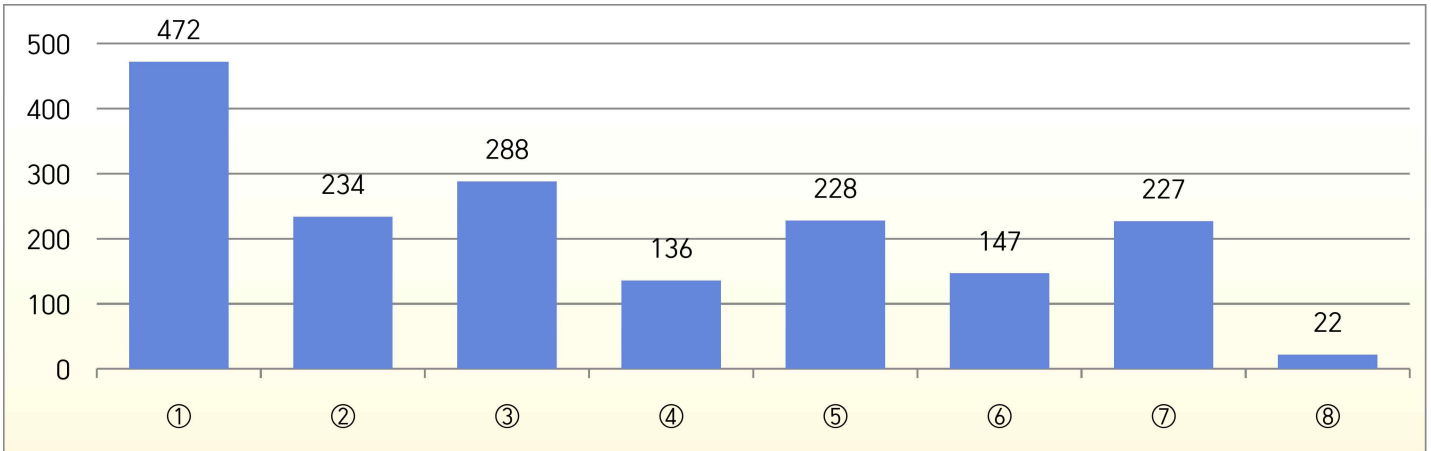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은 전기·에너지 산업의 부정적 요인으로

- 전기, 에너지 산업의 부실시공, 산업재해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안전성 미흡 351명 (21.5%)
- 탄소절감, 기후변화 대응 등 탈원전, 화력발전 폐지 등 일자리 감소 335명 (20.5%)
- 불안한 전기, 에너지 산업 현장문화 225명 (13.8%) 순으로 조사되었음.

※ 대통령 선거 이전 시기에 조사가 진행되어 탈원전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건, 사고에 해당되는 기업과 산업이 갖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전기·에너지 산업을 건설 산업과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전기·에너지만의 차별화된 안전문화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기·에너지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안전하고 고품질 전기시공이 가능함으로 학생과 진로교사, 학부모 등에게 단순히 위험을 동반한 산업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산업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전기공사 산업 최초의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의 활용을 확장하여 산업 이미지 개선에 적극 활용되어야 함. (중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가족 단위 관람객 등)

9. 전기·에너지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중복 선택 문항)



- ① 교육·훈련기관 재학생 대상 현장실무 체험
- ② 전기 산업 공공기관, 협·단체 공동 사회공헌활동 전개
- ③ 유튜브,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전기산업의 정보 제공(다큐멘터리, 직업활동 등)
- ④ 전기산업 진출을 위한 채용 설명회 개최
- ⑤ 성공한 전기산업 CEO, 기술자의 특별 강연
- ⑥ 전기산업 진출을 위한 진로선택 정보 발송
- ⑦ 전기공사 기술자의 현장 작업복, 장비 이미지 개선
- ⑧ 기타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은 전기·에너지 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 재학생 대상 현장실무 체험 472명 (26.9%)

유튜브,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전기산업 정보 제공 288명 (16%)

성공한 전기산업 CEO, 기술자의 특별강연 228명 (12.9%)

전기공사 기술자의 현장 작업복, 장비 이미지 개선 227명 (12.9%)로 조사되었음.

－ 산업 이미지에 대한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는 직업 체험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취득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음. 대체적으로 직업체험 및 정보취득과 가식적으로 보이는 작업복 등의 요인들로 산업 이미지를 판단하고 있음.

※ 교육청의 진로교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체험 종류 중 강연형·대화형, 현장견학, 직업실무체험(모의), 현장직업체험(실제작업), 학과 체험형, 진로캠프형 중 현장직업체험 [만족도 5점만점 직업체험(모의) 3.94, 직업체험(실제작업) 3.98]이 진로선택에 큰 도움을 주며 직업체험(실제작업)은 과반수가 재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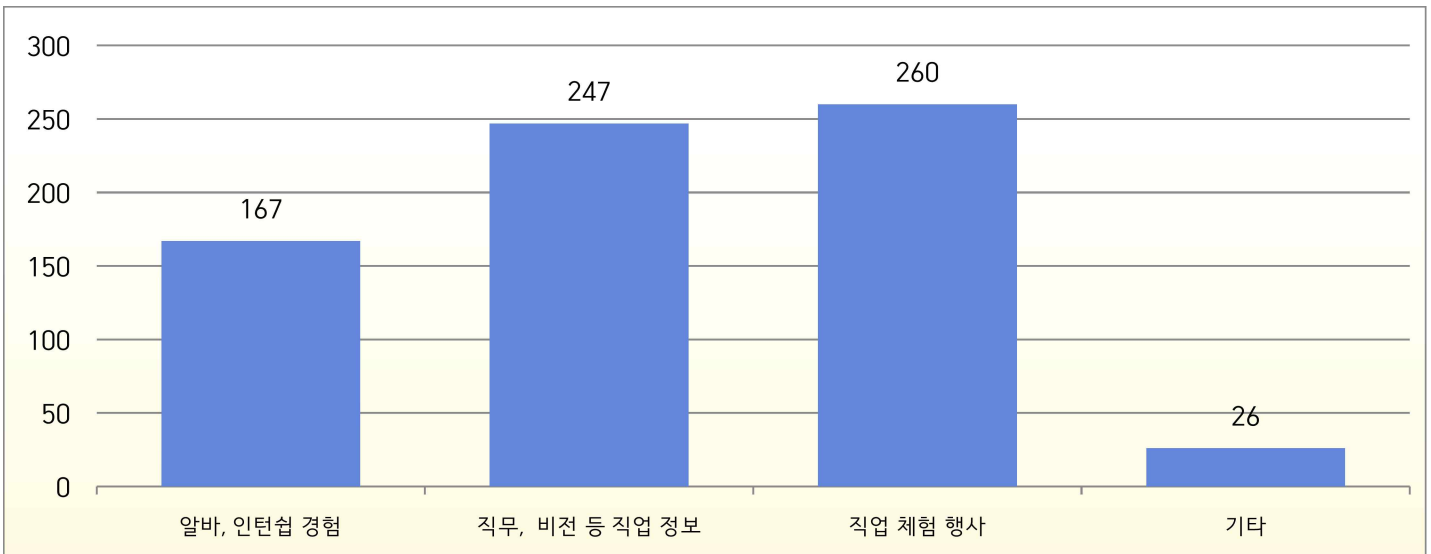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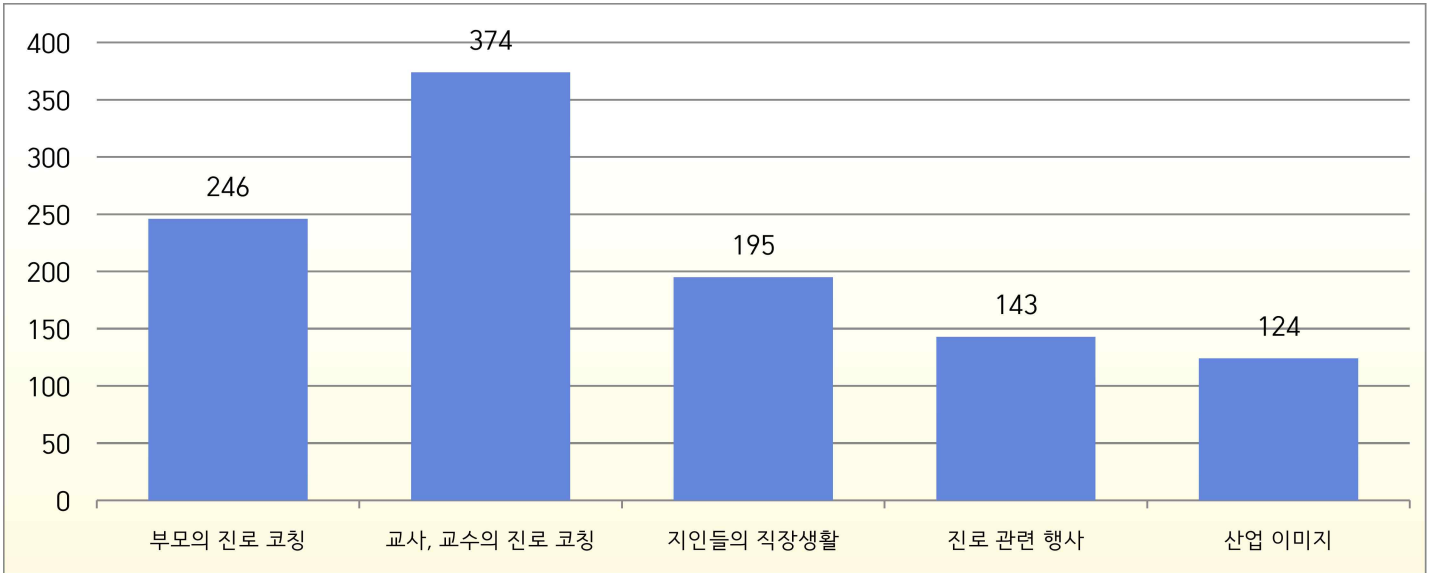
－ 전기공사 기술자는 전문적인 이론 및 숙련된 기술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건설 현장 또는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 기술자만의 직업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젊은 학생들은 티비과 신문이 아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 정보를 취득함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임.

EX) 펑수 등장 이전의 EBS와 현재 EBS에 대한 방송사 이미지 개선 사례

PART 3 진로 관련 현황

1.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중복 선택 문항)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은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 교사, 교수의 진로 코칭 374명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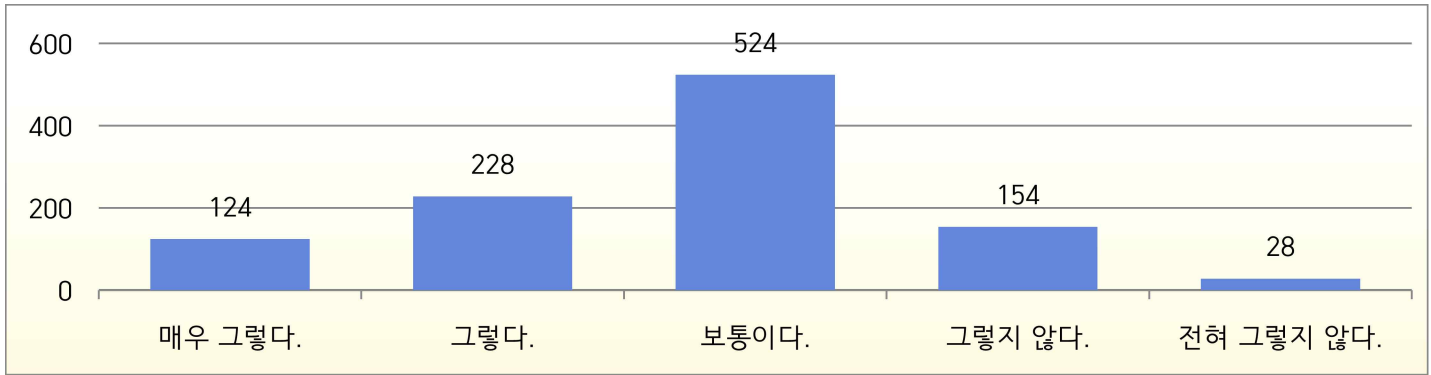
직업 체험 행사 260명 (14.5%)

직무, 비전 등 직업 정보 247명 (13.8%)

부모의 진로 코칭 246명 (13.8%)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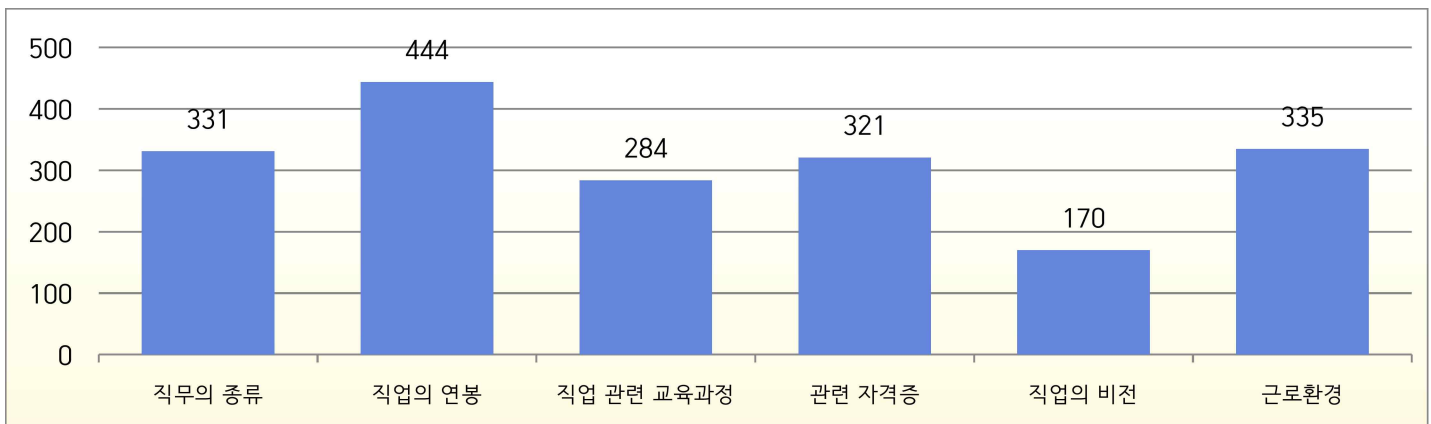
– 진로를 선택하는 방법 중 교사, 교수, 부모와의 상담은 전체 비중의 3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관을 가진 부모 또는 교사, 교수의 상담은 MZ세대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직업관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재함. ☞ 산업과 직종, 직업의 가치, 비전 등 구체적 정보와 직업관 형성을 위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진로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보유 여부



- 향후 취업 및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 또는 직업의 정보 보유는 보통이 524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음.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는 교사, 교수 등 진로상담을 하는 자에게 의존하는 형태이며 산업계 주도로 인력 유입을 독려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은 매우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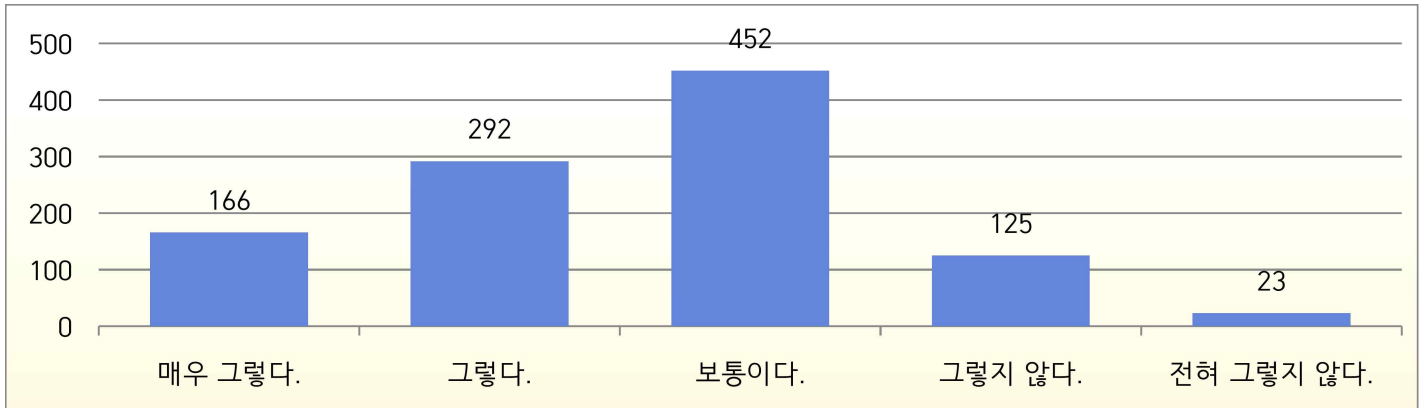
3.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 (중복 선택 문항)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이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
- 직업의 연봉은 444명 (23.5%), 근로환경 335명 (17.8%), 직무의 종류 331명 (17.5%), 관련 자격증 321명 (17%) 순으로 조사되었음.

- MZ세대의 직업관은 과거 공동체와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의 삶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점을 볼 때 다양한 전기직종의 연봉과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원했음.
- 그러나 전기공사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이 오랜기간 동안 지속된 탓에 일부 직종의 기술자 품귀 현상으로 인한 왜곡된 임금과 기업 간의 인력 스카웃, 노사간의 갈등 등 임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실로 인해 산업계가 선뜻 임금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 현재의 젊은 세대가 전기공사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보인 직업의 연봉에 대한 정보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 다시금 고려해야 할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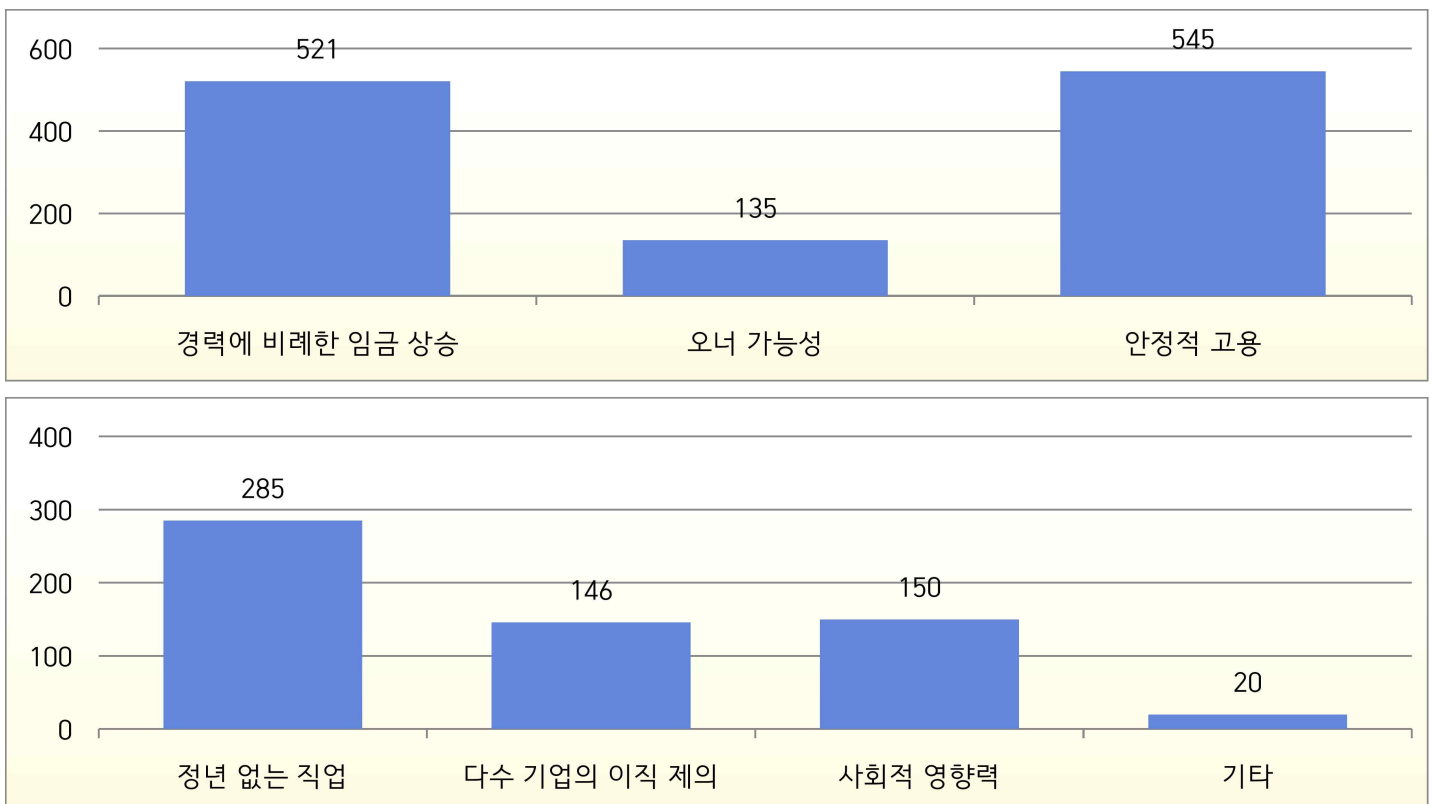
4.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가능성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458명으로 43.2%, 보통은 452명으로 42.7%로 조사되었음.

- 특성화고 재학생의 의견과 달리 산업계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은 산업계에 바로 적용될 수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 이는 학교 교육과 산업계의 괴리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계가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다양한 이유 중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 강화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음. 전기 ISC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계 주도 훈련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5. 전기공사 산업계 취업 시 기대감(중복 선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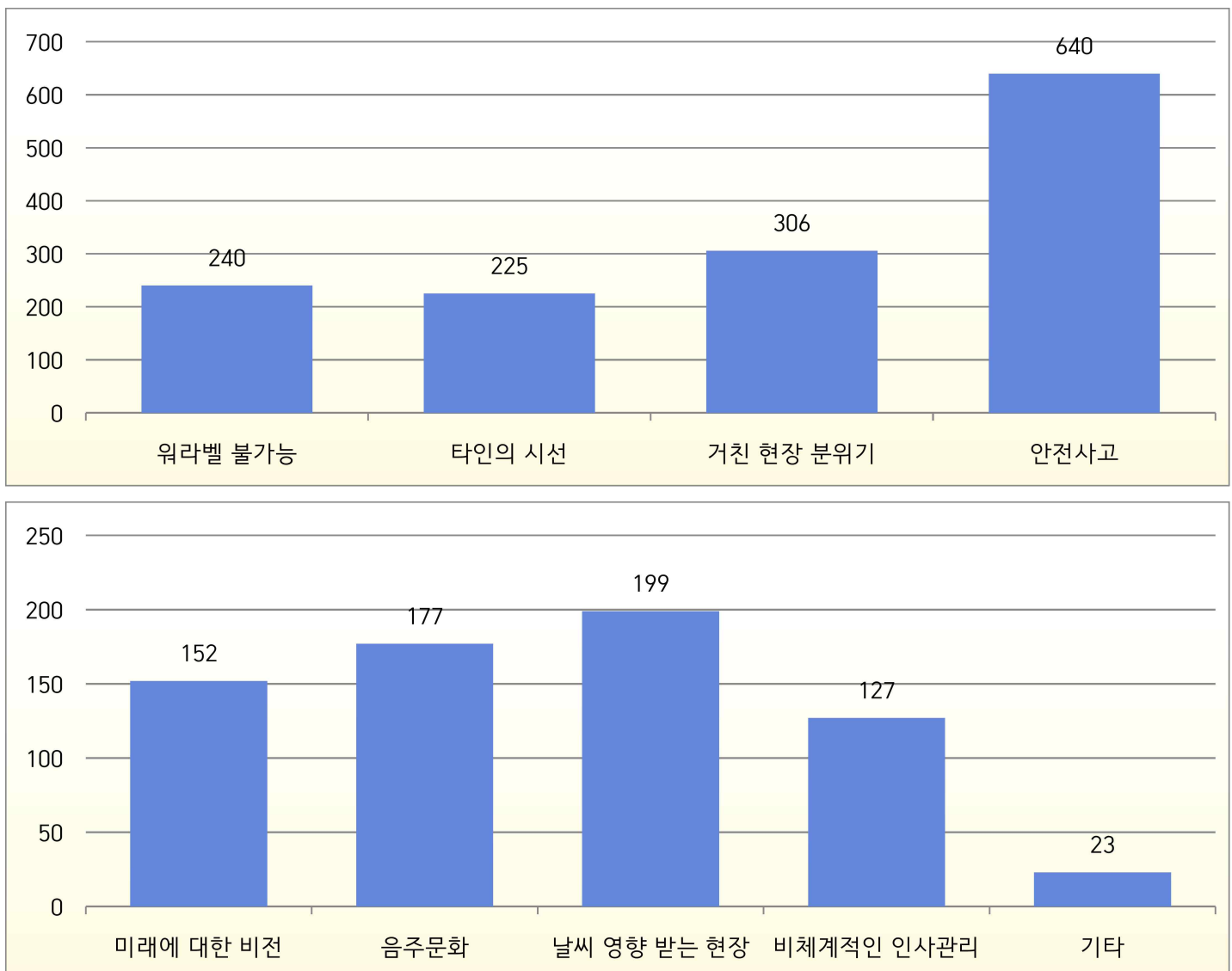
○ 전기공사 산업 진출에 따른 기대감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이 545명 (30.2%), 경력에 비례한 임금상승 521명 (28.95%), 정년이 없는 직업 285명 (15.8%)순으로 조사되었음.

– 2022년 사람인에서 조사한 MZ세대 설문조사(2030세대 2,081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건이 맞다면 기술직에 근무할 의향이 79.1%이며, 사유는 능력이나 노력만큼 보상이 55.7%,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로 본인만의 일 51.2%, 정년 없는 기술직 39.2%로 조사되었음.

※ MZ세대의 선호 직종은 인테리어 업자(31.3%·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용·뷰티업 종사자(30.2%), 도배·사미장사(28.1%), 생산 기술직(22.8%), 전기 기술직(20.6%), 화물차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18.5%), 건축설계사(17.7%), 항공 정비사(17.2%), 목수(15.2%), 용접사(9.2%) 순으로 조사

– 전기·에너지 산업으로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상, 직무, 정년 없는 기술자 등에 MZ세대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전기공사 산업계 취업 시 우려사항(중복 선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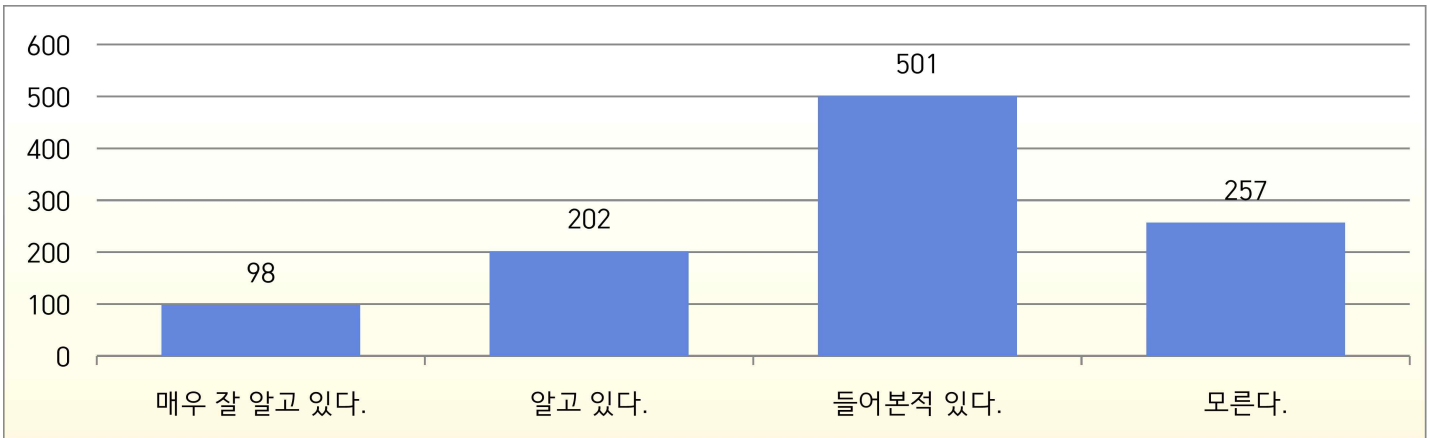
○ 전기 계열 특성화고 재학생이 전기공사 산업계 취업시 우려되는 사항은 안전사고가 640명 (30.6%), 거친 현장 분위기 306명 (14.6%), 워라벨 불가능 240명 (11.6%)로 조사되었음.

- 전기 계열 특성화고를 비롯한 MZ세대들은 힘들고(difficult), 더러운(dirty) 업무일지라도 적절한 보상과 워라벨 등이 갖추어지면 기술직을 할 의향이 있지만 여전히 위험(dangerous)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을 갖고 있음.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PART 4 기관 인지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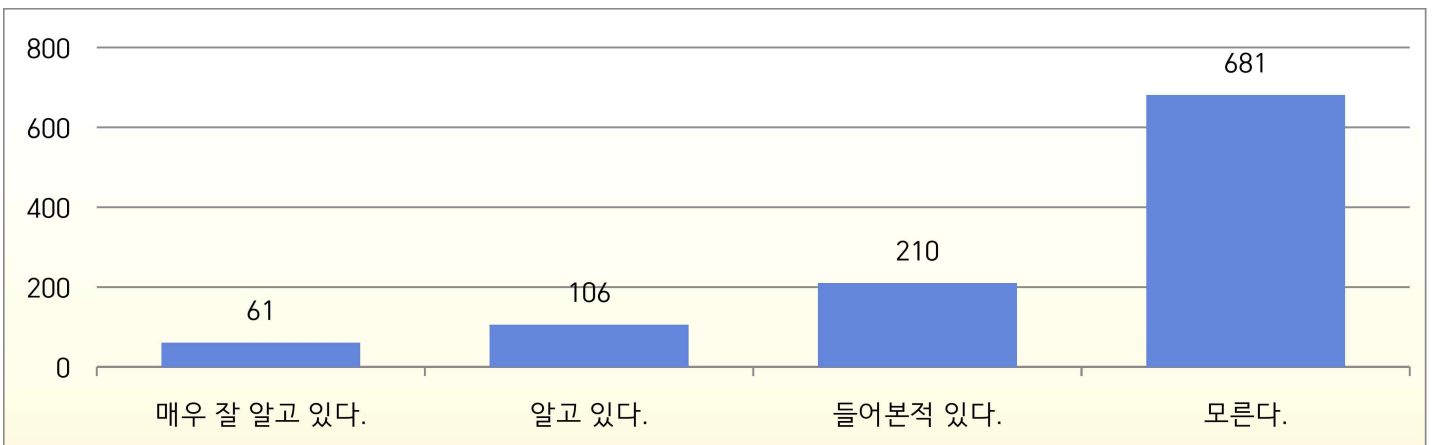
1.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지도, 오송사옥 인지도

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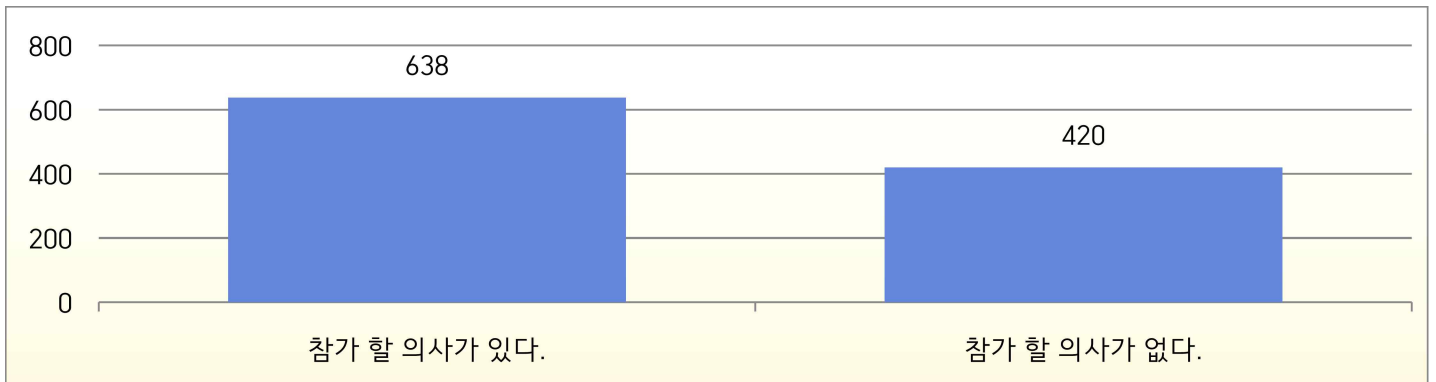
○ 특성화고 재학생 전체 인원의 75.7%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협회가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오랜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홍보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나. 오송사옥 건립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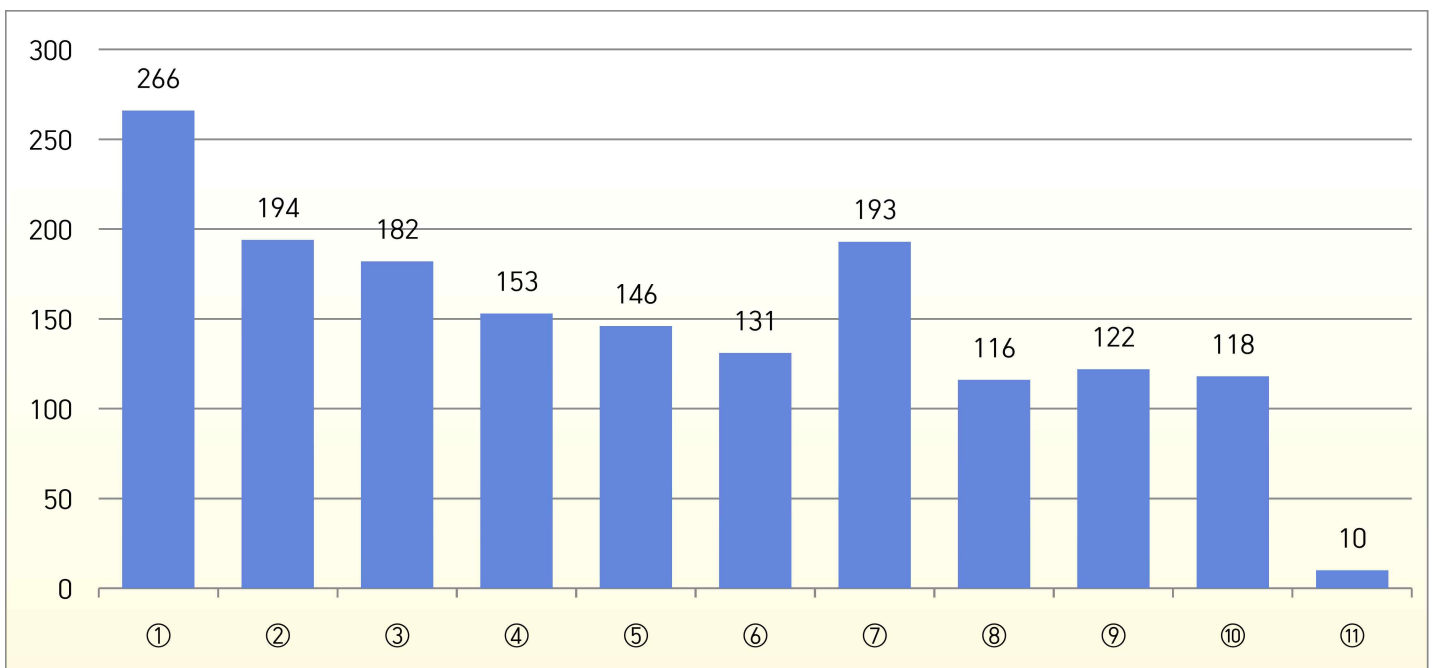
○ 전기공사사업계의 새로운 인력양성 랜드마크가 될 충청북도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 특성화고 대상 교육과정(고교학점제, 직업체험 교육 등) 운영 참여 여부



○ 특성화고 재학생 전체 인원의 60.3%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에서 특성화고 대상 교육 과정을 운영시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오송사옥의 기숙사 환경, 셔틀버스 등 구체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소개한다면 참여율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전기공사협회 오송사옥 교육과정 수요(중복 선택 문항)



- ① 가공배전, 활선, 변전 등 자격 취득과정
- ② 전기철도 기술자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과정
- ③ 기업에 취업하기 전 용어, 공구 사용법 등 기업 적응력 향상 과정
- ④ ESS(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충전시스템과 같은 미래유망 기술 과정
- ⑤ 태양광 발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시공 과정
- ⑥ 2D 캐드, 3D 전기설계 등 설계 직무향상 과정
- ⑦ 전기공사 공무 과정
- ⑧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전주 등 전기설비 점검 과정
- ⑨ 전기자동차 점검 및 충전인프라 과정
- ⑩ 전기설비의 에너지 진단 과정
- ⑪ 기타

○ 전기 계열 특성화고 대상 교육과정 수요를 조사한 결과

－ 가공배전, 활선, 변전 등 자격 취득과정 266명 (16.3%)

전기철도 기술자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과정 194명 (11.8%)

전기공사 공무과정 193명 (11.8%)

기업에 취업하기 전 용어, 공구 사용법 등 기업 적응력 향상과정 182명 (11.1%)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기공사 기술자가 3D 직종이라는 보편적 인식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드론 등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전기계열 재학생은 가공배전, 활선, 변전, 전기철도 기술자 등 현장 기술직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 수요가 높았음.

－ MZ세대의 직업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전기공사 기술자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 주도로 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끝.